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요”
테라사이클, 포스코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 대상 수상

- 테라사이클, 포스코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
-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최된 공모전으로 친환경, 저탄소를 주제로 총 136건의 사업제안서 중 3가지 사업이 최종 선정돼
- 테라사이클, 포스코의 제철 부산물과 아모레퍼시픽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건설자재로 개발하는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로 대상 수상 영예 얻어



<보도자료 사진=테라사이클 제공>

(2020년 12월 9일)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 테라사이클이 포스코가 개최한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사업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생산·소비’ 다.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및 일반기업이 참여해 친환경, 저탄소를 주제로 총 136 건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으며 그 중 총 3 가지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테라사이클은 재활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제철 부산물인 '슬래그'와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함께 재활용해 건축자재로 제작하는 사업제안으로 대상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한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축 및 토목용 업사이클 자재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테라사이클은 지난 2019년부터 아모레퍼시픽과 손잡고 화장품 공병 재활용을 위한 '그린사이클'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과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혼합해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 기부하는 등 창의적인 자원 재활용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테라사이클 관계자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를 통해 기업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며, "테라사이클은 앞으로도 당사의 핵심역량인 재활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라사이클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아모레퍼시픽, 빙그레, 락앤락, 이마트, 해양환경공단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끝>

###

About TerraCycle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한 21 개국에 진출해 재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terracycle.com/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